

강박적 과잉의 감각과 신묘로 포화된 회화

만재의 회화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채 인지하기도 전에 압도당한다. 시각 요소들의 과잉 분할과 결절에서 오는 시각적 과밀함과 동시에 그 분할에 대응할 만큼 복잡한 색채 분할, 고채도의 색들과 색의 대비들이 주는 강한 색 강도 때문이다. 시각적 강도는 크게 두 가지 계기에 의해 좌우된다. 분할 밀도와 색 강도고 이 둘은 크게 강도적 시각 자질이라 불린다. 그의 회화는 둘 모두에서 과도하다. 보통은 너무 큰 자극을 피하기 위해 한 쪽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색 강도가 크다면, 분할 밀도를 줄이고, 밀도가 높다면 색 강도를 줄인다. 그런데, 만재는 이 둘을 동시에 크게 올려놓았고, 그의 회화가 발산하는 강도는 배가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본 패턴이나 장식적 요소들을 조합해 사물이나 인간 형상을 만드는 방식, 색의 분할만큼이나 복잡하게 얹힌 색 대비들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은 엄청난 시각 강도 앞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잉은 여기서 한 번 더 증폭된다. 분할 밀도와 색 강도가 시각 요소의 측면에서 그림의 첫 분위기를 좌우한다면, 그와 동시에 인지적 차원의 요소들이 소위 정보량의 과잉을 불러온다. 그가 펼쳐낸 세계엔 온갖 세상 만물이 담겨 있다. 신화에 나올 법한 동물이나 식물, 과일이 있고, 동아시아의 전통 건축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비행기 같은 현대적 사물, 기계적 구조체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도 있다. 여기에 더해 각각 지위, 자세, 표정, 복장, 정체성에서 다른 인물 군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각각의 인물들은 나름의 상징성이나 서사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화면 전체가 장면적 서사로 보일 때도, 그저 중심 없는 분산 내러티브로 보이기도 한다. 어쨌건, 이야기 요소까지 더해지면 정보적 과잉은 더 커진다.

시각적 과잉과 정보 과잉의 하이퍼 과잉이 있다면, 반대로 미적이고 예술적인 정보, 즉 박주현의 회화적 세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정보들도 있다. 그것은 시각적이고 정보적인 과잉을 박주현의 미학으로 수렴하고 응축한다. 이 과잉을 특별한 미적 감각으로 응축하는 질서가 바로 그의 미적 원리다. 그것은 이런 강박적 과잉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 과잉을 어떻게 갈무리하는지 알게 한다. 그 원리는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시공간적이고 물질적인 미적 형식을 견인하는 동인이다. 그 미적 형식이야말로 그 자체로 세계의 가능한 한 형식이자, 그를 사로잡는 환상의 정체이고, 만재 회화의 핵심적인 미적 감각이다. 우리는 감각의 일차적 과잉에서 그 기저에 있는 미적 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자신의 회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후, 줄곧 ‘도깨비’라는 한국의 토착적인 초자연적 대상을 회화적 테마로 삼아 왔다. 도깨비를 어떻게 그리는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바로 그의 회화적 형식이자 주제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도깨비의 신묘神妙를 우리 앞에 신묘하게 나타나도록 그린다. 그는 도깨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를 감각하게 한다. 도깨비는 신령하고 오묘하기에 신묘하다. 신령하기에 오묘하고, 오묘하기에 신령하다. 오묘한 것은 양가적이다. 두렵지만 경외의 대상이고, 동시에 호기심을 부르지만 어떤 변덕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하다. 그것은 이질적이고 낯설지만 또 친근하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훌쩍 벗어나 초월적이다. 오묘한 것은 인간적 수준을 벗어나 복잡하고, 인간이 이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천변만화한다. 그의 회화는 이 신묘함을 회화적, 시각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묘하게 감각하게 하는 장치다.

그의 작업에 나타나는 사물들은 삼라만상, 즉 뽁뽁하게 펼쳐 놓은 모든 형상을 대표한다. 인간, 사물, 동식물이 있고,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도, 나아가 초자연적이고 신화적인 것들도 있다. 동양적인 것, 서양적인 것도, 과거, 현재, 미래도 모두 망라한다. 바로 신묘는 뽁뽁하게 삼라만상에 깃들어 있고, 반대로 삼라만상은 그 복잡성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이미 신묘한 존재다. 그 신묘함은 그저 범신론이나 애니미즘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한낱 사물인 것과 신묘의 관계 또한 신묘하기 때문이다. 그는 신묘 그 자체를 회화 안에서 감각하게 할 뿐, 신묘를 묘사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신묘는 종잡을 수 없이 오묘하게 삼라만상으로 천변만화하기에 그렇게 과도한 정보량이 필요했다. 신묘의 세계는 인간의 합리적 감각이나 이성적 추론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적 감각이나 세계의 오묘함 속에 있다. 그러니, 박주현에게 강박적 과잉이야말로 신묘를 감각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그의 회화에서 사물들과 그 세계를 이성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건 오히려 그의 회화를 배신하는 일이다. 그는 우리의 이해로 감당할 수 없는 세계, 바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재의 신묘는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무엇인가가 깃들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주어진다. 신묘는 신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다. 그래서 신묘는 경계적 존재가 주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의 회화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령하고 초월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그의 신묘는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도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이것과 저것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혼합된다. A는 A이지, A가 아닌 것일 수 없다는 동일성과 모순율은 신묘의 세계에선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논리적 원리가 깨져야만 바로 신묘한 것이 출현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의 회화엔 온갖 양식적, 질적, 범주적 퓨전과 하이브리드가 난무한다.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비인간, 자연물과 기계가 아무런 합리적 연관 없이 결합되어 있다.

신묘의 시공간 형식도 신묘한 감각의 주요한 회화적 장치다. 각 도상은 시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문화적 양식이나 코드, 기술적 조건 등에서 시간성을 내포하고, 이는 시간의 다층적이고 비선형적 혼재를 노정한다. 공간도 마찬가지다. 거리, 크기, 시점, 위치 관계를 포괄하는 일관된 퍼스펙티브가 없다. 중력 같은 공간의 물리적 원리, 공간적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 사물이나 도깨비, 신령한 형상들은 공간에 불쑥 출현한다. 이런 다층적 다중의 복잡성, 비일관성과 예측불가능함이야말로 그가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신묘함의 세계를 나타내는 미적 원리다.

과잉을 미적으로 응축하는 마지막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회화 요소는 색과 형태다. 이 두 요소는 전체 화면의 구성적 기초 단위이며, 오묘함보다는 신령함의 감각적 표징이다. 이는 전체의 과잉과 복잡 기묘함에 신묘한 분위기를 컬러링하는 미적 요소다. 그의 작업에도 명암 표현은 있다. 얼핏 명암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빛과 어두움의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물리적인 작동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색면의 중앙에서 가장 밝고 멀어질수록 명도는

떨어진다. 이른바 광휘 효과나 아우라 효과라 불리 수 있는 광도 그라데이션 기법이고, 이를 만재의 시그니처해도 손색 없다. 광선이나 네온을 묘사할 때 쓰는 기법이다. 이 광도 그라데이션은 패턴적, 형태적, 형상적 분할마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에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는 만재의 회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차적 요인이다. 이 광도 그라데이션은 모든 사물들이 현실적인 명암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빛을 머금고 발광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그의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은 겉으로 신령한 존재건, 인간과 사물이건,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신묘가 포화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신령한 것들은 외부의 빛을 빌리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신령한 기운을 발산한다.

형태의 원리도 그렇다. 고흐의 해치 라인 같은 다이어그램 수준의 단위 선적 형태들은 그가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그는 기본적으로 작은 만곡 형태들을 기본으로, 그것을 잇고 연결하고 조합해서 패턴과 형태, 형상을 만든다. 이 기본 만곡 형태는 덩굴무늬나 비천상에서 보는 것 같은 영기문靈氣文을 자신의 신체적 리듬대로 변형한 것이다. 그는 모든 형태를 이 영기문 형태의 선적 흐름으로 구성해 간다. 선이나 형태 하나하나에 신묘함이 깃들게 하는 그만의 드로잉 감각의 발현이다. 그래서, 만재의 회화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신묘가 포화된 상태로 있다.

만재 회화의 강박적 과잉을 기질적이거나 심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과도하게 주장하려 할 수도, 빈 공간 없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강박이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은 심리적이거나 기질적인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전혀 아니다. 정신과 신체의 일차적 기제를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로 번역해 내는 것, 전체를 견인하는 미적 원리 안에서 잘 정의된 개별 미적 요소들과 명료한 미적 형식성을 얻는 일이야말로 예술의 일이다. 그때 비로소 예술가는 자신의 스타일을 얻게 된다. 만재의 회화는 이미 스타일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

조경진(연구교수, 미술비평)